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8월 2일(금)
(음력 6월 28일)
Пятница
2 августа 2024 г.
№ 30 (1209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8월의 첫 번째 일요일은 러시아 철도 분야 종사자들의 날로 제정된 가운데 올해 이날은 8월 4일에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연방 포럼 〈오스트로와〉, 러시아 전 지역에서 500여 명 모여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사할린에서 개최되는 전 러시아 청년 포럼 〈오스트로와〉에 전국 76개 지역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다.

올해 포럼은 개인적인 삶과 러시아 및 극동 지역에서 근로의 진출전망을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은 후 진로계획을 세우고, 또한 주내 우수 기업들을 견학하고, 자기만의 기획을 개발한다. 포럼 프로그램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것도 고려했다. 포럼이 진행되는 기간 내내 거리 영화제와 강연, 러시아 스타들과 스포츠맨들과의 만남 등 기타 행사들이 모두를 기다린다. 가가린 시공원에서는 주요 행사들이 펼쳐지고, '옥차브리' 영화관 앞마당에서는 대규모 교육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럼에서는 〈우리 함께〉 행사가 진행되어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과 벨고로드주에서 온 아동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품 수집도 진행할 계획이다.

사할린에 물류센터 건설에 착수

아니와 지역 트로이츠코예 구역에 다기능 물류센터 건설이 시작되었다. 이 센터는 물품 정리, 운송, 보관, 화물 출납을 위한 현대적인 기술장비를 갖추어 가동되면서 이 물류 기업은 2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으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건설 착수를 추진한 가운데 사할린 물류센터의 가동으로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광범위한 물품 종류를 제공할 연방 상업망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할린의 기업들 측에서도 현대적인 보관창고의 규모는 기업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센터는 사할린 남부에 조성되고 있는 물류-운송 허브의 일부가 되며, 단지 전체가 고품질의 물류-운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면적 약 14,000m² 규모로 A급 창고 시설과 제조 시설이 2025년 2분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때쯤 사할린에서는 처음으로 재활용 판지로 일년에 1000만 개 이상의 골판지 박스를 생산할 계획인 가운데 새로운 공장을 위한 생산 라인을 구매했다.

물류센터 구역에서는 다양한 귀중품들을 위한 귀중품 보관소가 건설되는데 여기에 박물관 전시품 및 예술품, 역사 기록문서, 도서들을 위해 특별한 여건을 갖추어 건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를 비롯한 우수 박물관들이 더 많은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물류센터 건설을 위해서 우수한 장소가 선정됐다. 물류센터단지의 면적은 40헥타르로 위치상 코르사코브와 아니와, 홈스크, 네웰스크 지역들을 연결하는 교차로 구역에 있어 주요 소비자들로부터 최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물류센터에서 아주 가까이 통과하는 우회도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 오하 간 연방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가운데 이 도로 덕분에 사할린 지역들로 화물 운송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해질 것이며, 전반적으로 사할린 지역과 본토와의 사이에 화물의 흐름도 증가할 전망이다.

사할린에서 자체 의료인력 양성 예정

사할린주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 보건 분야를 위해 의료인력을 독립적으로 양성하려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

여름 기간에 국내 여러 지역들에서 68명의 전공의와 의과대 대학생들이 사할린 지역 병원과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인턴과정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고자 사할린주로 찾아왔다.

그리고 곧 사할린 지역은 독립적으로 의료인력들을 양성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사할린 지역에 태평양 국립의과대학 분교가 설립되면서 매해 350명 정도의 의료 전문가들이 교육을 받게 된다. 사할린 지역에 갈수록 대규모 의료센터가 건설되면서 의료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5년간 사할린 지역에는 33개의 신규 의료기관이 건설되었고, 20개 이상의 의료기관들에서 주요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마을들에는 20개의 응급진료 및 조산센터가 생겼다.

2026년까지 호무토워, 달녜예, 우글레고르스크, 돌린스크, 마카로브, 홈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새로운 보건소가 건립될 예정이며, 2029년까지는 13개의 응급의료센터가 생길 전망이고, 아동병원도 개설된다. 주목되는 점은 5년 후에는 더 많은 의료장비들을 갖춘 의료기술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할린주 우수 국민 교원 및 교사 선정

사할린에 〈국민 교육자〉 주내 경연의 우승자 명단이 발표됐다고 사할린 지역 영재발굴 및 지원센터가 전했다.

우수교사라는 명성을 두고 사할린주 여러 지역에서 온 학교 교사들과 유치원 교원들이 경쟁을 치렀다. 참가자들은 러시아 교육부의 행사 목록에 포함된 경연과 올림피아드를 비롯해 자발적이고 자원봉사 차원의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사회적 주요기획들에서 학생들의 전문기술 경연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과 연방 단계에서 교사들의 전문기술 경연에서 그들의 참가 효율성을 특징화한 정보가 들어있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다.

〈국민 교사〉 부문에 우승자는 스타로둡스코예 마을 학교 영어 교사인 안토니나 시트니코와가 1위를 차지, 코르사코브 지역의 4호 학교 정보학 교사인 안나 코브제와가 2위, 세웨로쿠릴스크 지역 학교의 역사·사회학 교사 니콜라이 와실렌코가 3위를 차지했다.

〈국민 교원〉부문에는 틔몹스코예 지역 제5호 유치원의 나제즈다 페르미노와 교원이 1위를, 코로사코브 지역 제8호 유치원의 박순희 음악 지도 교사가 2위, 세웨로쿠릴스크 지역 '세베랸카' 유치원의 타치야나 레오노와 교원이 3위를 차지했다. 이번 경연의 우승자들은 〈사할린의 등대〉 주경연 〈국민 교육자〉 부문에 참가하게 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의회138명 후보 출마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의회 25의석을 두고 자진 출마 후보자와 8개 선거연합회 대표자들을 포함해 138명의 후보자들이 출마한다고 사할린주 선거위원회가 전했다.

등록된 후보들 중에는 자진 출마가 18명이고, '예진나야 러시아 (통합 러시아 당에서 25명, '연금 수급자'당에서 22명의 사할린 주민 출마, '정의로운 러시아'당과 '러시아 연방 공산당'에서 사할린 주민 18명의 후보 출마 지지, 13명의 후보는 '러시아 공산당'의 지지로 출마를 원하고 있고, 10명의 후보들은 '새로운 사람들'당에서 출마 지지를, 9명의 후보들은 '자유. 정의' 연합에서 출마 지지를 받으려 한다.

후보자들의 대부분이 남성으로 53.24%이고, 한 석에 평균 6명으로 6: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중 연령 30세-39세까지가 39.57%, 40세 이상이 23.02%, 30세 이하가 19.42%, 50세 - 59세까지가 11.51%, 나머지는 60세 이상이다.

새고려신문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7,83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소소한 취미나 일상의 시간을 예술적으로, 창의적으로 엮어가는 김 예브게니

얼마 전에 사할린주미술박물관이 주최하는 '창작의 토요일'가족 축제의 일환으로 예브게니 김과 다리나 메이커버곡 듀엣의 공연이 열렸다. 30분간의 공연은 훌륭했다. 예브게니는 기타 연주를 하고, 다리나는 노래를 불렀다. 커버(영어: cover)곡은 음악 분야에서 다른 사람이 발표한 곡을 또 다른 음악가 자신의 의도를 반영해 음악적 기법을 활용해 재연주 또는 재가창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날 주로 외국 노래와 러시아 가수들의 노래를 커버한 노래들을 몇 곡 불렀다. 같은 노래 다른 감성으로 다가오는 노래들은 또다른 매력을 안겨주었다. 음악가 김 예브게니에게 인터뷰를 청했는데 그가 필자에게 건넨 명함에는 로고와 QR 코드 뿐이었다.

"큐알 코드로 들어가면 거기에 저에 대한 정보 볼 수 있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인지 알 수 있거든요."라고 예브게니가 말하였다.

큐알(QR)코드를 찍어 직접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정말 김 예브게니가 무엇을 좋아하고 즐기는지 알 수 있었다. 기타 연주도 하고 사진도 찍고, 짤막한 비디오 영상도 제작하고, 가죽제품도 만들고, 시도 쓰고, 엽서도 만든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도 궁금증이 발동해 그의 본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저 창작력이 뛰어나 아마도 개인사업을 할 거란 기대와는 달리 예브게니는 직장인이었다. 최근 2년째 '사할린스카야 에네르기야 (사할린 에너지)' 석유가스회사 행정지원팀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다.

가을에 30세를 맞이하는 김 예브게니는 러시아인 어머니와 사할린 한인동포 아버지 사이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태어났지만 8살까지는 홈스크에서 살아왔다. 부모가 헤어진 후 어머니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살게 되었다. 제16중학교를 다녔던 그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성적도 딱히 아주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사할린국립대 동양학과(일본어 전공)에 입학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공부를 재미있게 하고, 우수, 최우수 성적을 보여주며 장학생이 되었고, 대학 내 여러 활동도 활발히 했다. 그중 한국어 말하기대회 진행을 3번이나 맡았다. 활동과 좋은 성적으로 2015년 여름에는 재외동포재단이 세계 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 연수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정말 잊을 수없는 추억을 많이 쌓았고, 원주, 영월 등 방문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장학금도 받은 경험도 있다.

또 2015년에 삿포로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3개월 교육을 받았고, 그때 한국에서 온 학생과 친구가 되어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지낸다고 한다.

그는 한국어는 모른다고 하지만 동양 언어를 익히면서 숙달된 발음으로 한국말 몇 마디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증조모께서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할머니의 말은 알아들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며 나이 지긋하신 한인 동포들이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신기하게 들렸다고 한다.

그는 기타를 친다.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고등학생이 될 무렵 관심이 생겨 스스로 배우기 시작했다. 음악밴드에서 기타를 치는 친구가 생겨 그에게서도 많이 배우며, 전자기타 말고 아쿠스틱 기타를 친다. 기타 연주 실력은 그가 일본 오사카의 한 여행사에서 차량매니저로 근무할 때 실력이 늘었다고 한다.

"제가 2016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사할린스카야 에네르기야' 회사의 하청회사에 IT 전문가로 취직했는데 거기에서 2년 일하다가 전공을 되살려 일본어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마침 우리 대학 큐레이터 선생님이 일본에서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고 통과됐죠. 오사카에 갔는데 일본의 남부지역은 많이 돌아다녀보았어요. 그런데 혼자이기 때문에 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음악작품을 많이 익혔죠. 그리고 사진 찍기도 좋아하는데 그때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라고 예브게니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일본에 가기 전에 그는 또 하나의 작업을 좋아하게 되었다. 바로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좋은 소재로 혁띠, 지갑, 노트북 커버, 수저집 등을 재봉틀을 쓰지 않고 직접 손수로 제작한다. 꼼꼼히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만든 가죽 작품은 품위가 있고, 가치 있어 보였다. 가죽 작품을 만드는 이유는 좋은 소재로 만든 혁띠가 너무 비싸 직접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에 가죽을 구입해 만들어보았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이후 남은 가죽을 일본으로 가져가 일본에서 익히며 제작 실력도 늘었다고 한다. 지금도 가죽제품 주문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취미로 하는 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할지 고민될 때가 있다고 한다.

"사실 현재 개인사이트도 개발했는데 이걸 운영하다 보니 시간을 정말 많이 뺐깁니다. 현재 공연에 참가하거나 직접 공연 요청도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죽제품도 계속 제작하고 싶구요. 사진과 영상 제작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라고 그는 웃으면서 말한다. 다양한 취미와 재능을 살리며 되도록 즐겁게 살고 싶다고 한다.

창의력이 넘치는 그는 시도 쓰고 있다. 첫시는 러시아어가 아닌 영어로 탄생했다. 노래 작사·작곡도 한다. 발표는 아직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상제작도 전문가 못지 않게 잘한다. 취미와 아마추어로서 다양한 활동은 이미 아마추어의 수준을 넘고 있었다. 가수로서도 활동을 하고싶지만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공연에서 노래 몇 곡만 부른다.

그는 또 하나의 취미로 우편엽서를 만든다. 그가 찍은 사진으로 디자인하고, 인쇄소에 주문한다. 사실 이 엽서는 판매하지 않는다. 자기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펜으로 마음을 담아 글을 쓰고 선물한다. 손글씨로 전하는 마음은 진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가 가진 재능으로 무엇을 만들고, 제작하고, 쓰던지 그는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담아 한다. 그는 직장인으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 돌아와 로스네프치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할린주 경제개발부에서 일본과 관련된 근무 제안에 개발부에서 2년을 근무했다. 현재 정세로 담당업무가 없어져 다른 과로 갔었는데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2년 전에 '사할린스카야 에네르기야'회사로 이직했다.

열심히 모든 일과 시간에 정성을 쏟는 예브게니의 일상은 바쁘다. 그래서 그와 얘기를 나누는 모든 소재들은 다양하고 재미있다. 그는 가족에 대해서도 맺어진 인연을 끈끈하게 이으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한다

그에게 '좋아하는 말, 표현은 있는가?'란 질문에 그는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내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고등학생 때 마음에 들었던 말들, 위대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가득한 명언들을 삶의 지표로 삼아 길을 잃지 않으려 하고, 자기만의 삶을 창조하며 사는 청년은 아름답다.

그는 말한다: "당신이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무엇도 아쉬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별하길. 사랑하며, 창조하며 행복해지길..."

그는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 직함보다는 '큐알코드'라는 상징으로 궁금증을 더하게 하고, 찾아보게 하는 예술적 명함을 내민다. 그는 자기 일상을 예술적으로 창조해 나가고 있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사할린의 거리영화제에서 러시아의 감독들 활동교실 진행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거리영화제를 개최하며 러시아 영화감독들의 독특한 활동교실이 열리는 가운데 8월 8일(목)부터 10일(토)까지 3일간 전문가들이 '옥챠브리'영화관의 2개 상영관에서 16시부터 18시까지 동시에 진행한다.

옥차브리 대상영관에서는 '현대적 영화과정에서 배우의 전문성' 집중 행사를 아나스타시야 네차예와 영화감독이 진행하는데 이 교실은 영화 속의 역할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한 것으로 여기서 강사는 현대 러시아 영화촬영 기술에 대해 설명하며, 배우 지망생이 스스로를 알고, 자신의 장벽을 허물고, 자존감을 높이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해졌다.

소상영관에서는 영화감독 니키타 수틔린이 영화제작과 동영상 촬영, 스토리텔링, 콘텐츠(창작물) 부문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위한 '도시의 이야기, 방에서 나오라' 집중 행사가 열린다. 그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는 법과 스마트폰에 카메라 앱이 있을 경우 거리 사진(스트리트 포토그래피) 장르의 이론과 실습을 가르친다. 집중 행사의 참석 인원이 한정돼 사전 등록을 전화(8-924-283-72-06)로 할 수 있다.

На Сахалине российские режиссеры проведут мастер-классы на Фестивале уличного кин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ходе Фестиваля уличного кино пройдут уникаль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от российских режиссер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Сахкино».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рех дней с 8 по 10 августа эксперты выступят параллельно в двух залах ККЗ «Октябрь» с 16:00 до 18:00.

«В большом зале Октября - интенсив «Мастерство актера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инопроцессе» проведет режиссер Анастасия Нечаева. Курс рассчитан на любого, кто хочет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роли актера кино. Здесь тьютор ра сскажет про современный российский кинематограф, и, главное поможет начинающему актеру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самим собой, раскрепоститься и повысить свою самооценку», - поделились в сообщении.

В малом зале Октября режиссер Никита Сутырин устроит интенсив «Городские истории. Выходи из комнаты» для молодежи,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кинопроизводством, видеосъемкой, сторителлингом и контентом. Он поделится, как жить со смартфоном, если в нем оказалась камера, научит жанру уличной съемки в теории и практике.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ограничено. Записаться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8-924-283-72-06.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사반투이 기념

7월27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에서 사할린 사반투이(타타르인과 바쉬키르인의 봄철 농경 작업 마무리 축제)를 위해 준비한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졌다. 공원에서는 주제별 행사들이 펼쳐진 가운데 누구나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행사에 주 정부 및 시행정부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활동교실, 경연들에 참가하며, 전통 볶음밥을 먹고, 자신만의 위장망 '승리의 매듭'을 엮어보기도 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метили Сахалинский Сабантуй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27 июля развернулась насы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дготовленная к Сахалинскому Сабантую.

В парке развернулось множество тематических площадок - каждый мог найти себе что-то по душе. В мероприятии уча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гости посеща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участвовали в конкурсах, угощались пловом, а также завязывали свой «узелок победы» на маскировочной сети.

사할린에서 제1회 대학생 근로활동부대 축제 개최

사할린에서 여름 근로활동을 진행할 활동적인 청년들 500명 이상이 첫 대학생 근로활동부대 축제에 모였다. 이 축제가 웨스토츠카 마을 랴구쉬카 명승지 구역에서 조성된 가운데 축제에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 행사장이 펼쳐지고, 스포츠 행사로는 페인트볼, 다트, 배구, 육상 릴레이 경주가 진행되었으며, 축제의 흥미진진한 부분은 드론 조정 경기였다. 게임 행사장에서 청년들은 대학생 근로활동부대의 야외 게임인 대규모 젠가(나무 블록 쌓기) 게임과 꽝이 없는 로또 추첨의 행운에 도전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랴구쉬카 명소에 등반하여 소원을 빌기도 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축제에서 청년들과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할린의 음유시인 김 웨니아민과 함께, 그리고 대학생들과 함께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 모여서 얼마나 좋은지〉라는 노래를 부르고 사할린 지역에서 청년들의 사회적 진출 전망을 논의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вели первый фестиваль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Более 500 активных молоды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 трудовое лето на Сахалине, собрались на первом фестивале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8면에 계속)

제2대 재외동포청장에 이상덕 인도네시아 대사

재외동포청은 제2대 청장에 이상덕 주 인도네시아 대사가 임명됐다고 7월 25일 밝혔다.

이상덕 신임 청장은 주 싱가포르 대사,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 주중 공사참사관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이 청장의 임명 배경과 관련, "중국 동남아 등 우리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고,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체득한 협상 조정 능력이 탁월하며 재외동포 보호와 모국과의 교류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 청장은 한국외국어대 포르투갈어과와 미국 조지아주립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외무고시(22회)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동북아국장 재직 당시 '위안부 문제' 관련 대일 협상 실무를 맡아 2014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 수석대표로 참여해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다.

외교관 퇴임 이후인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책협의단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 했으며, 같은 해 12월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임명됐다.

이상덕 청장은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으로 있을 때 사할린을 두 차례 다녀간 적이 있다. 2012년 10월에는 그는 사할린에서 열린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설명회에 한국 대표단 단장으로 방문했다. 2013년 5월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된 러·한 제2차 실무협의 회의에서도 한국 측 단장으로 참석하였다.

실무협의 회의 주요 심의문제는 사할린한인기록물 입수 문제였다. 그 외 사할린 주정부와 한인조사 문제도 협의했다.

신임 재외동포청장의 취임사는 본지 7면에 게재.

(본사 기자)

마카로브시, 제10회 '우리 함께'축제 개최

지난 7월 28일(일) 마카로브에서 '우리는 함께'민족 간 축제가 열렸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인과 한인 민족 문화가 돋보이는 이 행사는 올해 10회를 맞이했다고 한다. 축제는 마카로브 시행정부와 사할린 주한인회의 주최로 진행한다.

이날 러시아와 한민족 문화, 전통과 풍습을 소개하는 공연, 박람회, 다양한 활동교실이 마카로브 중앙광장에서 펼쳐졌다.

마카로브에서 항상 뜨겁게 환영하는 그룹은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타악기 팀이다. 이번에도 역시 볼 만한 공연이었다.

또한 '토르나도'클럽의 태권도 시범,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과 '희망'무용단의 출연, 김 안드레이와 박 블라디미르의 노래가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코레이스키 텔레그라프' 텔레그램-채널이 전했다.

이날 공예 활동교실과 잡채, 뺀세(왕만두) 만들기 요리교실에 참가 희망자가 아주 많았다. 이날 뺀세(왕만두)만 300인분을 나누었다고 한다.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은 한민족 공예 활동교실과 요리교실은 '세대 간 연결, 전통의 이어줌' 사회적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재정지원은

사할린주 정부, 주지사가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민족 씨름대회도 펼쳐졌다.

무엇보다 축제 참가자들은 잘 놀고 배우고 정을 나누며 명절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주한인협회 제공)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가을 편지 / 고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 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 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 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고은 시인의 시. 김민기 선생님의 작곡으로 유명세를 탔지요. 며칠 전 김민기 선생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작업할 게 수북이 쌓여있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더군요. 선생님께는 한 달 전 쯤 안부를 드렸어요.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연락 드리긴 힘들어 전화번호만 들여다보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부 인사를 자주 드렸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선생님께서 올 추석만큼은 거뜬히 넘기실 것 같았거든요.

김민기 선생님은 '김민기'로 통했습니다. 아이콘 같았으니 어쩐지 존함보다 브랜드 같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토지문화관에서 작업할 때면 늘 한결같이 거기 매지사에서 식당으로 올라오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아련합니다. 건너편에는 '모란 동백'의 주인공, 이제하 선생님이 상주하셨고, 친했던 동료 선후배작가들이 이 분들의 뒤를 종종거리며 함께 걸었지요. 달도 별도 수다를 떨던 참으로 상쾌했던 날들입니다.

제가 아직 지나간 날들을 추억할 만큼 나이 들진 못했으나, 그 때 김민기 선생님과 함께 산책을 하고, 술을 마시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어쩐지 코끝이 찡해집니다. 코로나 터지고난 뒤 아예 레지던스라면 발길을 끊어서 인지, 그 따뜻했던 시간은 슬슬 제 기억 속에서 멀어져만 갔지요. 저는 원래의 일상으로 되돌아온 듯, 도시 속 빌딩을 제 숲 속인 양 활보했습니다. 주식 차트같은 걸 면밀히 살피 듯 말이죠.

제게 '토지'는 이상하리만치 깊은 숲 속 같았고, 김민기는 연대 뒷산 '민기 로드'를 유유자적하는 선각자 같았을 때 얘기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하나 둘 별들이 집니다. 여름의 한 복판. 다시 가을이 오겠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멋진 분이 일찍 타계하셨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새고려신문 75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맞아 본사는 사진콩쿠르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사할린 한인 역사〉,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사진.

• **출품수:** 3점 이상

• **사진규격:** 1,000x1600 픽셀의 JPG/JPEG 형식 파일 (5mb 이하), RGB

• **공모기간:** 2024년 9월 15일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은 2024년 9월 27일. 우수 작품은 시상식에서 전시.

사진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직위원회

ОБЪЯВЛЯЕМ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э коре синмун"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Тема "Моя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темы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Требования к работам: от 3-х фото, формат JPG/JPEG, размер 1000x1600 пикселей, объем не болеем 5 МБ, цветов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RGB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Лучшие работы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газете, а также выставлены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27 сентября 2024 г. .

Оргкомитет

새고려신문 창간 75 주년 기념

2024 한국어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연장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공모기간**: 2024년 9월 15일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ов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Депортац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пединститута: взгляд сквозь призму времен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орейский (до 1933 года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1931 году. Согласно совместного постановления Совета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Союза ССР и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ВКП(б) № 1428-326 от 21.08.1937 года «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в целях «пресечения проникновения японского шпионажа» 173 тысяч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и выселены из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Казахстан и Узбекистан. Также, вместе со всем имуществом и документацией, был депортирован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орейски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с общим контингентом в 1300 человек.

Бывшие сотрудники и студенты института даже и не подозревают, что историю их работы, учебы и жизни бережно хранит Кызылорд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который еще ждет свои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историков и журналистов.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и начале сентября 1937 года институт еще работал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обычном режиме: приказы о зачислении студентов по факультетам, распределение годовой нагрузки часов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прием и увольнение штат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 12 сентября характер приказов изменился, началась подготовка института к переезду: в этот период подготовки были категорически запрещены какие либо отлучки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домой студентам института и Рабфака, сформирована группа к переезду для сопровождения эшелона. В драматический для всей страны 1937 год, в начале октября, институт в сложных, тяжелых условиях продолжил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городе Кзыл-Орда (Казахстан).

В 1937-1938 годы пединститут имел четыре факультета: исторический, физико-математический, естествозн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Занималось студентов — 372 человека, на 7 кафедрах работало 27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з них – один доцент.

После переезда в Кзыл-Орду обучение велось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о после принятия Постановлен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Всесоюзн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большевиков) от 24 января 1938 года «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школ» вуз утратил свой «корейский профиль» и перешел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обучения. Сохранилось письмо студента Ко-Чен-Сана председателю Совнаркома СССР В. М. Молотову с протестом против перехода преподавания с корейского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обучения. (Из истории депортаций. Казахстан. 1935-1939 г.г. Том 2, стр.556-557.).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характерная для 30-х годов интенсивная «чистка кадров» коснулась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нститута. Так, в ноябре 1935 года снимаются с должност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им Сергей Михайлович за службу в белой армии у генерала Хорвата, О Чан-Хван — в связи с арестом органами НКВД, Ким Константин Петрович — за участие в прошлом в Меркуловском Народном собрании (1921-1922 г.г.).

Но серьезный урон нанесли институту репрессии в 1937-1938 годах. Арестам подверглись наиболее опытные работники.

В августе 1937 года помощник директора п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части Хван Ен Гын был уволен, как участник контрреволю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 – шпионско — повстан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 обвинительном заключении указано, что «он вел активно подготовку повстанческого контрреволюционн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ротив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обрабатывал студентов Корейского пединститута в японофильском и повстанче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Был осужден и расстрелян в мае 1938 года, полностью реабилитирован в 1957 году за отсутствием в его действиях состава преступлен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орейски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1937 год. Фото из личного архива С. Хасановой.

Книги из фонда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Кызылорд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ени Коркыт Ата, 2024 год.

В архивных документах мы видим фамилии тех, кто был уволен или исключен из института по мотивам: шпионаж, враг народа, антисоветская контрреволюцио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Как врагов народа, уволили заведующего учебной частью пединститута Пака Моисея Петровича и заведующего учебной частью учите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Ни Ивана Михайловича, за связь с врагом народа была уволена и.о.доцента по педагогике С.Л.Столина. В январе 1938 года уволены преподаватель истории Эм Харитон Михайлович за антисоветскую агитацию, контрреволюцио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 корейцев, и, военрук Ким Гван Су, как враг народа. Они были приговорены к высшей мере наказания (расстрел) и впоследствии полностью реабилитированы.

В мае 1938 года уволен преподаватель психологии Огай Тихон Вениаминович по обвинению в шпионаже и службе в белой армии, арестован, в июне 1939 года он был освобожден из-за недостаточности следстве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но реабилитирован только в 1997 году.

Репрессии не обошли стороной и студентов института.

Высшая мера наказания была назначена студенту четвертого курса Киму Хен Гуку з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леветнических слухо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срыв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водимых партией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ССР; студенту Югаю Борису — по обвинению в антисоветской контрреволю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уденту Муну Хак Дюну — по обвинению в шпионаже.

Студенты первого курса физико-математ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Цой Ын Юн, Эм Экман и Ко Ин Су (Когай Григорий) были исключены из института в марте 1938 года за антисоветскую контрреволюцио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Цой Ын Юн был приговорен к высшей мере наказания, а Эн Экман и Ко Ин Су– к 8 и 5 годам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ых лагерей. Впоследствии все они были полностью реабилитированы.

В январе 1938 года исключены из института, как враги народа, студенты Ким Гю Вон и Ли Менфир. Дальнейшая судьба Ли Менфира неизвестна. Ким Гю Вон был обвинен в контрреволю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сужден к 10 годам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по обвинению в контрреволю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абилитирован в августе 1989 года.

В связи с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 выселение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в Кызылорду был перевезён и фонд корейских книг библиотеки. Отдел редких книг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Кызылорд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хранит эти старинные изд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и китайском языках. Как известно, до конца XIX века классический китайский письменный язык в Корее был общепризнанным средством официального общения. Собрание редких книг удивляет многих посетителей.

Это, например, «География Пхенандо» (провинция) в восьми книгах (том IV и том VII). Название Пхенандо происходит от первых букв главных городов провинции – Пхеньяна и Анджу. Книги выполнены на тончайшей рисовой бумаге, обложки — из плотной бумаги жёлтого цвета с тиснёным рисунком, книги прошиты в пяти местах красной кручёной нитью, отдельные листы и обложка испорчены водой, тёмные пятна сырости присутствуют на листах внутри книг. В фонде библиотеки также: «Комментарии к Конфуцию», «Сборник законов Кореи»(1897-1910г.г.), «Императорские указы эпохи Мин», тома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праве (указ коре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1897года)» и религиозно-астрологической философии, литературные сочинения авторов XVI- XIX веков и другие.

Такова судьб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который в 1937 году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причинам» был расформирован и депортирован в Кзыл-Орду. На базе этого института был открыт другой – Кзыл-Ордински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1938г.), ныне Кызылорд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Коркыт Ата, подготовивший и продолжающий подготовку сотен и тысяч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региона и страны.

Ирина Ким,
доктор экономических
наук, г. Кызылорда
Источник: https://koreilbo.com/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хохане обсудили вариан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по СМП

В прошлый четверг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Пхохан прошел 12-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импозиум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регионе бассейна Восточного (Японского) моря. В этом году главной темой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Арктике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выводов, которые сделали эксперты в своих докладах и дискуссиях, -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в Арктике и СМП, а также актив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как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маршрута для перевозки грузов между Азией и Европой.

В докладе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фессор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Ёнсан Ким Ги Тхэ отмет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бизнес России прилагают большие усилия, чтобы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объем перевозок по СМП и в целом задействовать данный маршрут. Он указал, что после начала СВО на Украине страны Запада ввели жесткие санкции против Москвы и прекратили сотрудничать с Россией, в том числе в Арктике. "Однако стоит посмотреть на карту и сразу становится понятно, что без России невоз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б Арктике и Северном морском пути", - отметил Ким, подчеркивая ключевую роль РФ в этом регионе. Эксперт призвал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аучны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кругов Южной Кореи не забывать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в Арктике и СМП.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 исследовани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мор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Ким Мин Су отметил, что после 2022 г. РФ и Китай резко активизировали св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Арктике и по СМП, тогда как в Арктическом совете наблюдается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семью странами Запада,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все являются также и членами НАТО. Подобный конфликт привел к параличу Арктического совета на фоне развити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Пекином. В этой связи ученый призвал Южную Корею реагиров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образом на ситуацию и быть готовой к "наступающей эре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Профессор Инчхо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Чхве Су Бом указал на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Пхохана в деле развития СМП, подчеркнув, что этот город,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на юго-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Южной Кореи, может стать одним из важнейших пунктов, который будет обеспечивать динамичное развитие и наполнение СМП.

Развивая эту идею, эксперт Ким Чжин Хон, который ранее возглавлял офис Центробанк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Пхохане, предложил несколько конкретных проектов по практ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целях развития СМП и Арктики. Озвученные Кимом идеи включали совместную подготовку вузами РФ и РК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морским профессиям, а также врачей с ориентацией на работу в регионе Арктики и СМП.

Олег Кирьянов (Пхохан, РГ)

Число экономически активных пожилых людей достигло рекорда

Число пожилых южнокорейцев, занимающихс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достигло в этом году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аксимум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май текущего года, 60,6% из 15 млн 983 тыс. южнокорейцев в возрасте от 55 до 79 лет были экономически активными. Это на 0,4%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охватывает как работающих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так и тех, кто активно ищет работу. Число работающих в это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выросло за год на 316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оставив 9 млн 436 тыс. человек, а уровень занятости достиг рекордного уровня 59%. 51,2% из общего числа пожилых людей получают пенсию, что на 0,9%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редний размер пенсии составляет 820 тысяч вон (591 доллар) в месяц, что на 9,6%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Главы МИД РК и России обсудили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28 июля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АСЕАН в Лаосе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министр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и России Чо Тхэ Ёля и Сергея Лаврова. По сообщению российского МИД, «главы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ведомств двух стран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по вопросам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а также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 обеих сторон выражена готовность к продолжению контактов по вопросам, представляющим взаимный интерес.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ТАСС со ссылкой на офици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Д России Марию Захарову, беседа состоялась по просьб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Запрашивая встречу с российским министром, Чо Тхэ Ёль настоял, чтобы на ней н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а пресса.

Оппозиция критику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 бездействие

Ведущая оппозиционн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подвергла крити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за неспособность предотвратить внесение золотых и серебряных рудников на японском острове Садо, где применялся принудительный труд корейцев,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Шахта включена в список благодаря бездействию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 Сок Ёля,- заявил 29 июля лидер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Пак Чхан Дэ. Он обещал провести расследование, чтобы привлечь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тех, кто совершил «дипломатическую катастрофу». По имеющимся данным, не менее двух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были принудите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ны для работы в тяжёлых условиях на шахте Садо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когда Корея находилась под колониальным правлением Японии.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оизвёл частичные кадров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31 июл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роизвёл частичные кадров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Он назначил на должность министра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Ким Мун Су, занимавшего должность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оциальным и трудовым вопросам при президенте. Выступа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им Мун Су обещал учитывать мнения профсоюзов, парламента, деловых и научных кругов, а также прессы. Он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каз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омощь гражданам страны,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вступать в брак и рожать детей, не заботясь о материальных проблемах. Ли Чжин Сук назначена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ре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связи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й, а председателем финансового комитета назначен Ким Бён Хван. Послом РК в Японии назначен Пак Чхоль Хи, занимавший должность ректора Корейско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академии. Он - известный учёный-японовед, который подчёркивает важность построения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а будущее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оседними странами. Адмирал в отставке Сим Сын Соп, который с 2018 по 2020 год был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им военно-морскими силами, назначен послом РК в Японии. Посол РК в Нидерландах Чхве Хён Чхан назначен ректором Корейско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академии.

В июне РК посетили 1,4 млн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 июне РК посетили 1 млн 420 тыс.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что на 47,5% больше, чем в том же меся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зма Кореи.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96% того же месяца допандемийного 2019 года. При этом число туристов из США превысило допандемийный уровень на 44%, с Тайваня - на 21,8%.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оказатель для Японии составил 91%, а для Китая - 84% допандемийного уровня. Большин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посетивших РК в июне, составили граждане Китая, далее следуют граждане Японии, США, Тайваня и Гонконга.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нынешнего года РК посетили 7 млн 700 тыс.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что на 73,8%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Это 91% показателя первой половины 2019 года.

Граждане РК могут посетить без визы 191 страну

В 2024 году РК вместе с Австрией, Финляндией, Ирландией, Люксембургом, Нидерландами и Швецией заняла третье место среди 227 стран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индексе паспортов по количеству стран, которые можно посетить без визы или оформив визу на границе. Данный индекс регулярно составляет британская консалтинговая компания Henley & Partners совместно с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ссоциацией воздуш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Сингапур, чьи граждане могут посетить без визы 195 стран.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Франция, Германия, Италия, Япония и Испания (192 страны). США, чей паспорт ранее долгое время занимал первое место, в этом году заняли восьмое место - 186 безвизовых стран. Северная Корея - на 96-м месте (41 страна). На последнем, 103-м месте, Афганистан (26 стран).

RKI

Южнокорейскую сборную сопровождают скандалы на Олимпиаде в Париже

Целая серия неприятных инцидентов уже произошла вокруг сборной Южной Кореи на стартовавшей в Париже Олимпиад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тлетов сопровождает серия скандальных ситуаций, где они выступают в качестве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не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действий организаторов. Дело дошло даже до вмешательства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который потребовал от главы МОК разобраться с инцидентами. Впрочем, суд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это не помешало корейским атлетам завоевывать медали.

Самый громкий инцидент, который вызвал бурю негодова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произошел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ходе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была на француз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представлена как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что является официальным название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нтересно, что когда проходили атлеты собственно из Страны чучхе, то их правильно назвали - опять же "КНДР". В итоге формально получилось, если верить дикторам, что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ОИ-2024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две спортивные делег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Реакция Сеула была стремительной и бурной, тем более что у нынеш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га крайне напряж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с северянами. Протесты и требования принести извинения посыпались от самых раз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труктур - этого потребовала зам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РК, глава официальной делегации РК на ОИ-2024. Кроме того, протест заявил и МИ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ульминацией же стал телефонный разговор между президентом Южной Кореи Юн Сок Ёлем и главой МОК Томасом Бахом. Последний рассыпался в извинениях, сказал о чудовищной ошибке и в ответ на требования Юна "не допустить повторения подобного снова" заверил, мол,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В итоге организаторы Олимпиады-2024 принесли официальные извинения сборно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ад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буря негодования от Южной Кореи исходил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из официальных структур, которые вынуждены блю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ую политику, основанную на критике действий Пхеньяна.

На этом, однако, приключения южнокорейцев на Олимпиаде не закончились. Настала очередь страдать от действий организаторов пловцам из РК, жившим в олимпийской деревне, от которой до бассейна, где проходили тренировки и состязания, надо было добираться два часа вместо обещанных 40 минут. Кроме того, предложенные шаттлы не были оснащены кондиционерами, что было крайне неудобно при нынешней жаре. В итоге шес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ловцов выехали из деревни и поселилис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 отеле, расположенном гораздо ближе к бассейну.

Третий мини-скандал случился уже после побед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фехтовальщика О Сан Ука в финале состязаний по сабле. О, который принес для сборной РК на этой Олимпиаде первое "золото", был назван как О Сан Гу, то есть с ошибкой в третьем слоге. С таким искаженным именем он достаточно долго фигурировал в официальных отчетах и итогах.

"Париж, ну сколько можно-то?! Что мы тебе сделали?!" - так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о корейское информагентство Yonhap все эти "ляпы" французов.

Впрочем, все эти скандалы не сказались на выступлении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стартовали весьма удачно. За два дня состязаний они выиграли пять медалей, включая две золотые, и занимают сейчас общее третье место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Среди медалистов, кстати, есть и талантливый пловец Ким У Мин. Он едва пробился в финал на дистанции 400 м свободным стилем, но в итоговом заплыве оказался третьим, принеся первую для Кореи за последние 12 лет олимпийскую медаль в плавании.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свою роль сыграла возможность ездить в автобусах с кондиционерами, которую корейские атлеты получили после смены отел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28.07.2024)

Данные на агентов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и Южной Кореи утекли в интернет

Громкий скандал разразился во второй крупнейше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пецслужбе - Командовании развед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В интернет и, скорее всего,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утекли личные данные на секретных агентов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и,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под прикрытием, занимаясь сбором информации по КНДР. Опасаясь за их безопасность, часть сотрудников в срочном порядке отозвали домой, а контрразведка теперь выясняет, как такой провал стал возможен.

О скандале одновременно сообщили основные издания и информагент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е ссылаются на источники в оборонном ведомстве. Примерно месяц назад Командование развед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установило факт утечки на сторону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секретных данных, содержащих в том числе личную информацию на секретных агентов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и РК. Речь идет как о действующих под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прикрытиями в посольствах сотрудников, так и тех, кто работает в ином качестве.

Дело немедленно было передано для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 Командование контрразвед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На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в интернет ушло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секретных документов, по которым легко можно определить агентов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и и место их работы. Все они занимались сбором информации по главному противнику Сеула - Северной Корее - и, как признали следователи,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информация ушла именно к КНДР. В результате, опасаясь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 своих сотрудников, значительную часть из них в экстренном порядке вернули на родину.

Уже установлен и канал утечки сверхсекретной информации. Данные ушли с личного компьютера сотрудника, который работает в Командовании развед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К и курирует как раз находящихся за границей агентов. Сам он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компьютер был взломан хакерами,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Однако до сих пор открытым остается вопрос, как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оказалась на личном компьютере сотрудника.

Подобного рода сведения находятся на сервере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и, чья компьютерная сеть в целях безопасности никак не соединена с интернетом. Перенести данные из нее на носители типа флешек сложно и категорически запрещен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К отказались объяснять то, как сотрудник получил эти данные. Было лишь заявлено, что следствие продолжается и в конце концов вс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данного происшествия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В СМИ возникли предположения, что имела место халатность, когда сотрудник пошел на нарушение служебных инструкций и ради удобства работы перенес секретные документы на личный лэптоп.

Отметим, что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в центре скандала оказалась друга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пецслужба - Национальная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ая служба (НРС). Прокуратура США предъявила обвинения известному эксперту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бывшей сотруднице ЦРУ этнической кореянке Суми Терри.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следователей, она в течение десяти лет сотрудничала с НРС, передавая южанам информацию, а также периодически организовывала встречи с "нужными людьми" в правящих кругах США. За это ей передавали дорогие подарки, угощали в шикарных ресторанах и передавали деньги на компенсацию расходов.

Что касается конкретно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и РК, то в 2018 г. был арестован ее сотрудник, который в течение пяти лет передавал секретные документы северокорейца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выборах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21 июня 2012 года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ведомляет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бес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 кандидатам на выборах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значенных 6-8 сентября 2024 г.

Наименование СМИ: «Сэ коре синмун(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Общий объем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бес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в агитационный период составит 3604 кв. см.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х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а школы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й школы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объект должен принять детей 1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строят взамен школы, которую с 2020 года признали аварийной. В связи с недобросовестными подрядчиками, которые ранее занимались объект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стоянно задерживали и откладывали.

- Нужно наращивать темпы. Отставание от графика недопустимо. Мы делаем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в каждо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были созданы все удобства для жителей. На Курилах мы развиваем туризм, но важно не забывать и о местных жителях. Здесь мы подразумеваем не только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в виде дорог, дворов и прогулочных зон, но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 садов и школ. Северные Курилы должны быть обеспечены социальными объектами. Для этого нам нужен надежный подрядчик, который строит на островах. Готов лично включаться в эту работу, напрямую помогать бизнесу, решать все возникающие вопросы,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плану здание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блоков, 1– учебный блок, 2 – блок столовой и спортивного зала. В трехэтажном здании разделят потоки младших и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На 1 этаже в первом блоке разместят помещения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отделенные от остальной части школы. Предусмотрено 4 класса, спальные комнаты, игровая, кабинет врача. Во втором блоке обустроят спортивный и актовый залы.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 кабинеты старшей школы,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омещения. На третьем этаже - кабинеты старшей школы.

- Работы на объекте ведутся, составлен недельно-суточный план. Сейчас на объекте выполняются внутренние отделочные работы и монтаж инженерных систем. Выполнены работы по устройству наружных сетей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На объекте задействовано 36 рабочих,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растить эту численность, - добавил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помним,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активно строят не только школы, но и детские сады. В жилых комплексах «Верба» и «Зеленый город»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и Новой Деревн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откроют два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 Сдан детский сад в селе Крабозаводском на Шикотане. В Китовом в 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е долгожданный детсад сдадут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Кроме тог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ады открыли в Головнино на Кунашире и Троицком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жителями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жителями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рамках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 В ходе встречи прозвучало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вопросов от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Больше всего сахалинцев интересовали темы медицины,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За помощью к главе региона обратилась пожилая тымовчанка. Женщин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не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льготные лекарства в аптеке, есть проблемы с поставкой препаратов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

- У меня проблема, я болею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Приходится самой покупать лекарства. Спасибо, сделали операцию на глаза, я все вижу, но по диабету лекарства недоступны, - рассказала женщина.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ситуация недопустим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о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будет проведена проверка. Деньги за препараты, купленные за свои деньги, вернут.

- Это недопустимо. По какой причине доста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препарата было не довезено в район – будем разбираться. Мы организуем проверку и проведем разбор в адрес нашей аптекарской службы. Если нет льготного препарата, он должен быть взят с коммерческой полки и передан вам. Вы ждать не должны 100%, - ответил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 Я что денег не выделил? Ответ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ый. Это урок. Ресурсы в области есть. Почему у человека нет лекарства – непонятно. Кроме разгильдяйства, по-другому оценить ситуацию не могу,-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Еще один вопрос был посвящен оснащению местной больницы. Тымовчане пожаловались на стар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уже вышло из строя и требует срочной замены.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здесь заменят рентген. Аппарат приобретут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Кроме того, жалобы прозвучали в адрес аппаратов ЭКГ и УЗИ, халатного отношения врачей в местном отделении гинекологии.

- Я лежала в гинекологии. Палаты в ужасном состоянии. Я просила сделать мне УЗИ, врач сказал, что для беременных УЗИ нет, мой ребенок умер. Меня прооперировали, и теперь у меня не будет детей. Это халатное отношение врачей, - поделилась женщина.

- Я сделал вывод, что состояние медицины в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е неприемлемое и недоступное. Я буду принимать решительные меры, в том числе по линии снабжения лекарствами,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ледующей темой встречи стала страшная трагедия в Тымовске, которая произошла в ноябре 2022 года. Жильцы дома попросили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уцелевшее здание и прилегающую территорию, переезд они не планируют.

- С большими проблемами нам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чтобы часть дома, которая признана жизнеспособной, была подключена к теплоснабжению до наступления холодов. Остается нерешенным вопрос со статусом дома. Официально дом считается как одно целое, и он признан аварийным. Нам необходима реконструкция здания. Остатки снесенных подъездов до сих пор портят внешний вид территории. Сроки по реконструкции здания постоянно переносятся, так как наш район сейсмоопасный,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усиление этого здания, обследование состояния квартир ни разу не делалось. В квартирах есть трещины, которые прогрессируют. Жильцы переживают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 проживания. Возьмите, пожалуйста, на контроль, - обратилась сахалинка.

- Первое, что я сделал сегодня, я поехал в этот дом, и я встретился с жителями этого дома. С первого подъезда людей немедленно расселили, для остальных построили новое жилье, сегодня вручали ключи новселам. Оставшиеся жители не говорили, что дом ломается и нужно из него переселяться. Более того, мне было доложено, что люди хотят остаться. Глядя в глаза мне скажите, чем помочь вам? Если вы хотите в нем остаться, я вам говорю, сделал замечание мэру и министру ЖКХ, сделана отмостка неправильно. Вся вода с крыши течет в подвал, поручения дал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 входной группе и канализации тоже были замечания. Что касается разрушенных подъездов, следствие завершено, все будет аккуратно демонтировано с последующим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м, поручение тоже дал, - отв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тем жители села Чир-Унвд подняли проблему протекающей крыши в местном доме культуры. Женщин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уже три года поднимает этот вопрос, однако никто не хочет принимать меры.

- Идут проливные дожди, наша крыша течет. В весенний период мы вообще затапливаемся, сейчас в дожди протекают два помещения, где занимаются дети. Я уже устала об этом везде говорить. Здание сдали в 2021 году, три года оно течет, никто не хочет никак принимать никаких решений, - рассказала женщина.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муниципалитет приступит к работам 1 августа. Сроки начала работ затянулись из-за юридических вопросов по отношению к предыдущему недобросовестному подрядчику.

- Я проверю тезис, что поручение было дано, а вопрос не решался три года. Скажу так, я этого человека просто выгоню. Вот и все. Сегодня уже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лишились своих должностей, начнем и с руководства снимать. Если на самом деле все подтвердится, всех выгоню.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сделан ремонт и даю поручение провести проверку с пристрастием,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еле Ясном жители также попросили выделить средства н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дома культуры. Губернатор поддержал инициативу сельчан, деньги на ремонт выделят.

Кроме того, в ходе встречи подняли вопрос ремонта подвало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Жительница поделилась, что на цоколе ее дома постоянно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из-за канализации, грунтовых вод или сильных дождей. Дом на улице Октябрьской оперативно взяли в работу.

- Я так скажу, специально обошел сегодня несколько дворов. Человеку, который делал там отмостки, - руки оторвать, если по-человечески сказать, проверку провести и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завести – это если по-чиновьичьи. Все было сделано специально, чтобы затопить подвал. Министру и мэру поручил, чтобы быстро навели порядок. Все проблемы с затоплением подвалов не держите в себе, обращайтесь к мэру, все поручения я дал, и он будет со всем разбираться. Это системная проблема», — сообщ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прозвучали вопросы о расселении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селе Молодежном построили один дом на 12 квартир, однако этого не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ие жители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ут переезда в новые квартиры.

- Пока не переселим всех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не успокоимся. Мы строим больше, чем кто-либо в России, ежегодно вводим по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нового жилья. Каждую неделю мы вручаем людям ключи от новых квартир, - отв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завершении встречи прозвучали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Жители отметили внимани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к их проблемам, а также волевые решения, прозвучавшие на встрече.

-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ас за трудную, но нужную для нас работу. Вы первый губернатор, который помог нам. Спасибо! Вы помогаете, дай Бог здоровья, - сказала тымовчанка.

Отметим, что все вопросы, прозвучавшие на встрече с жителями, взяты на контроль. По ним да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ручения губернатора и установлены сроки исполнения.

Увелич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сель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2022 года действу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Комплексное развитие сель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С помощью господдержки в селах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 зоны отдыха, проводят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социальных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троят дороги.

Одно из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граммы -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сель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У сельчан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благоустроить зоны отдыха, спортивные и детские площадки, облагородить места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произвести ремонт уличного освещения, дорог и тротуаров. Главное условие таких проектов – инициатива, а также трудовое или финансовое участие самих жителей, либо организаций,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с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этом сумм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и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ов составляет до 70% от общей стоимости проекта, остальные 30% – вклад органов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внебюджетные средства.

В 2022 год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еализовано 5 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в 2023 году их количество уже составило 12. На 2024 год Минсельхозом России было выделено со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яти проектов. Учитывая важность задачи по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на селе,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держал инициативы граждан, выделив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 В текущем году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 31 общественно значимый проект на общую сумму более 67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Долинског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и Тым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Будут построены новые детские и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и благоустроены памятники, организованы парковки и остановк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установлено освещение, созданы новые и обустроены существующие зоны отдыха, произведен ремонт дорог и другие проекты, – отметила Инна Павленко,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реализовано 8 проектов. Так,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в селе Чехов установили уличное освещение по ул. Восточная. В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е в селе Ясноморское обустроили две водоразборные колонки, а в селе Горнозаводск появилась новая современная детская площадка по ул. Коммунальной, 15, а также закрытый остановочный павильон и туалетный модуль на обществ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по ул. Шахтовой, 18.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ранее по ул. Шахтовой находился признанный аварийным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й жилой дом, после сноса которого образовался пустырь в центре сел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жителей и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о комплексному развитию был обустроен сквер.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дорогу на ул. Заречная в селе Первомайск, дорожное полотно по ул. Парковая в селе Рощино, а также установили освещение по ул. Воронежская в селе Буюклы.

- Давно просили сделать освещение по Воронежской улице, а то вечером темень, ничего не видно. Плюс по этой улице постоянно дети из школы возвращаются, которые со второй смены учатся. Сейчас освещение есть и можно спокойно идти, не оборачиваясь от каждого шороха в темноте. Хочется сказать спасибо губернатору, который поддерживает такие идеи. Нам, как сельским жителям,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нас слышали и делали нашу жизнь комфортнее, – расс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Буюклы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Сегодня обеспечение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проживания на селе является приоритетной задачей для федераль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Для этого применяется комплексный подход к развитию сель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Именно реализуемая программ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решен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ой задачи по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и уровня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сель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социальных услуг, модернизации инженерной и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Бесплатную парковку обустроили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есплатная парковка на 170 машиномест появилась в самой современн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оздушной гаван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такое поручение д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еперь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дожидаться там прилета своих родных и друзей.

На парковке обустроены безбарьерные проезды и двухметровые тротуары. Поблизости предусмотрена площадка для выгула собак для пассажиров, путешествующих с питомцами.

– Люди просили сделать бесплатную парковку в аэропорту.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с аэровокзалом, что он обустроит за счет соб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Теперь у пассажиров есть выбор, где оставить свою машину – на платной стоянке возле аэропорта ил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бесплатной альтернативой.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боты начались в мае и в конце июля уже были завершены. Площадь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я составила свыше 5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 Раньше машины стояли на дороге в аэропорт. Встречающие ждали звонка от своих родных и друзей и ехали за ними к зданию аэровокзала, чтобы уложиться в бесплатный период. Теперь они смогут ожидать на новой бесплатной парковке, поблизости с аэровокзалом,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Кроме того,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аботает платная парковка.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долгосрочной стоянки с посуточной оплатой и краткосрочной – с почасовой. Выделена зона для лицензированного такси, чтобы автомобили не забивали проезд к аэропорту, а могли подъехать к своим пассажирам в назначенное время. Парковоч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такж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для служеб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 для авто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상덕 신임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

이상덕 제2대 재외동포청장 취임사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6월,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출범시킨 재외동포청에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청은 출범 이후 불과 1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재외동포정책 체계화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원폭피해자, 파독근로자, 사할린, 고려인 동포, 입양인 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재외동포 정책의 외연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한글학교 지원,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강화 등 재외동포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도 더욱 내실있게 다졌습니다.

최근에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도입하는 성과까지 거두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신생 동포청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기철 초대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지난 1여 년간 많은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표면상로는 재외동포의 숫자가 점차 감소 추세입니다.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줄고 있으나 재외동포의 국내유입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동포사회가 성숙해 가고 있는 와중에도, 이러한 흐름에 소외되어 왔던 동포들에 대한 보살핌도 필요합니다. 비록 재외동포청이 설립되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의 거주국 간의 관계설정에 있어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로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재외동포들께서 공감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만, 갓 부임한 제가 오늘 재외동포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러한 동포업무를 다룰 대한민국 정부조직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어떠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포청이 신생 기관인 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불가피하게 모였지만, 내부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 원팀의 조직문화와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동포청이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지향한다면, 우리 청 자신이 그러한 과제를 이행할 조직문화와 역량을 스스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공직 가치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공직에 대한 신념과 자부심이 없으면, 이러한 업무를 장기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공직가치로 무장된 바탕 위에, 창의적·창조적 사고로 업무에 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습관을 키워 나갔으면 합니다.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은 과감히 탈피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들어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동포사회는 더 이상 모국의 종속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는 공식적기록으로는 1902년 제물포항에서 사탕수수 노동자 121명이 하와이로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에도 고구려·백제의 유민, 일제 강점기 만주·사할린 이주 등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재외동포사회 형성의 배경에는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자리잡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우리의 재외동포정책은 오랫동안 재외동포사회와 본국과의 민족적, 감성적 유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동포사회는 과거와는 판이합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모국과 도움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해외 역량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미국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주류사회 진출이 활발하고, 직전 근무하던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동포분들이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 성취를 이루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하신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외동포사회의 위상 변화가 세계 한민족의 총체적 역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우리 정부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신설한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위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재외동포사회와 모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로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750만 재외동포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동포청이 되도록 몸을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억 들여 '한국인 밥심 되살리기' 프로젝트 전개

농협,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 전개

농협이 1000억원을 투입해 쌀값 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한다.

농협(회장 강호동)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불안정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 ▲쌀 수출·판매 확대 ▲쌀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약 5만t을 소진하고, 코로나 이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60kg을 회복해 쌀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8) 61.0kg → ('19) 59.2kg → ('23) 56.4kg으로 매년 줄고 있다.

먼저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해 범국민 쌀 소비 붐을 일으킬 계획이다. 시·도 농협지역본부와 지자체, 교육청, 연고기업 간 아침밥먹기 MOU를 체결하고, 범농협 12만 임직원 아침밥먹기와 아침간편식 고객나눔 행사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와 함께 진행해온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편의점 '모두의 아침밥', 기업체 '근로자 아침밥' 등에도 참여 학교와 유통업체, 기업을 확대해 아침밥 실수요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류열풍을 토대로 쌀과 쌀 가공식품 수출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수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운송료 등의 부대비용을 지원해 수출물량을 확대하고, 냉동김밥 등 수출상품을 다변화해 현지 한인마트, 한인식당 등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쌀 가공식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딩 히트상품을 개발하고 OEM을 확대하는 등 농협의 생산역량 강화에 힘쓴다. 쌀 가공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가공·주정용 쌀을 공급하는 농협을 지원해 쌀 가공식품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판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8~11월에 우수 전통주와 쌀 가공식품을 발굴하는 품평회를 진행한다. 이어 12월에 '우리쌀, 우리술 K-라이스 페스타'를 개최해 우수 출품작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는 등 쌀 소비촉진 붐을 이어간다.

이번 소비촉진 운동을 통해 농협은 범국민 아침밥먹기 운동 1.5만t, 쌀 수출·판매 확대 1만t, 쌀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 2.5만t 등 총 5만t의 신규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어렵고 배고픈 시절 따뜻한 밥 한끼가 주는 위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며, 대한민국은 밥심 하나로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뤄냈다"며, "농협은 밥심의 귀중함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고자 대대적인 쌀 소비촉진 운동을 펼쳐 쌀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쌀값 안정을 견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의 안전한 노동과 권익보장에 재외동포청도 나서라!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의 희생자 중 일부의 발인식이 엄수된 가운데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이번 참사로 한참 꿈을 안고 살아가야 할 20대초에서 40대 청춘 23명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다. 여기에는 재외동포(F-4) 체류자 12명, 방문취업(H-2) 체류자 1명 등 중국국적의 동포 15명과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중국동포 1명과 그의 중국 국적 배우자(한족), 라오스인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재외동포인 중국동포들의 희생이 컸다.

이번 화재참사는 여러 보도나 조사결과에도 밝혀지듯이 명명백백하게 인재임이 드러나고 있다. 유가족들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 측, 화성시와 정부에,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 측에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에는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말고 대책위와 논의하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유족들과 개별 접촉해 빠른 장례와 추가보상금 지급으로 유족들을 회유하며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게다가 고인들에 대해 '불법취업' 운운하며 책임을 줄이려고만 하고 있고,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보상을 달리 제시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재외동포 비자로 체류하는 동포들은 제조업체에서 단순노무에 상관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인력파견업체를 통해서도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비자의 중국동포에 대해 단순노무를 할 수 없다며 불법취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인을 두 번 죽게 만드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제 핵심은 오히려 회사 측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모종의 거래가 있는 인력파견업체를 만들어 재외동포 비자 동포들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느슨한 점을 이용해 재외동포 인력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점이다. 이것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회사 측의 고의성이 농후한 잘못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당국은 회사 측의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고개만 숙이고' 열심이 일한 죄 밖에 없는 고인들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유족들에게 정보제공에 협조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화성시는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점차 중단할 것을 통보하여 유족들이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적 관심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유족들은 매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많은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

지난 6월 26일 재외동포청장이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포들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발전에 밑거름과 같은 존재이다. 이들이 더 이상 이런 참사로 희생되지 않도록 재외동포청도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또한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상과 동포유족들이 애도의 시간을 갖고 회복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024년 7월 29일

(사)너머, (사)청소년미래연구, 겨레의길 민족광장, 겹겹프로젝트,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경주시외국인도움센터, 광주이주민종합센터, 나와우리, 난민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큰이웃아시아, 동북아평화연대, 동포세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생통일충남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아리아리 불꽃, 이스크라21, 이주민센터친구, 이주와 인권연구소, 전국여성비상시국회의,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포승고려인마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중삼강포럼, KIN(지구촌동포연대)

곽노길, 곽노진, 구태희, 권태식, 권혁태, 김경림, 김광미, 김김정현, 김도희, 김동은, 김명준, 김미애, 김서경, 김수연, 김수화, 金：楠, 김예인, 김은혜, 김은혜, 김정덕, 김정범, 김정희, 김정희, 김준용, 김지민, 김지연 ,김지운, 김지형, 김진영, 김채화, 김필수, 김현동, 김호철, 남지은, 노태철, 류진희, 문유리, 문하용, 박명숙, 박미용, 박미용, 박미정, 박찬교, 박혜진, 반기민, 배진만, 손동주, 손윤환, 송수민, 송한별, 신정현, 안세홍, 안윤희, 안중선, 유금자, 유은재, 유재현, 윤성혜, 윤세병, 이경희, 이권명희, 이명원, 이승연, 이양지, 이용학 , 이은진, 이종호, 이진희, 이황휘, 임채련, 장석림 , 장재희, 장현자, 전영민, 정슥항, 정연희, 정영순, 정천식, 조경희, 조선금, 조선이, 조선희, 조영훈, 최규영, 최문길, 최상구, 최인숙, 최지웅, 하상윤, 하헌종, 한명희, 한희정, 홍학기, Kyung - tae Kim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Он состоял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станца Лягушка, в поселке Весточка. На фестивале развернули несколько интерактивных зон. На спортивной площадке можно было посостязаться в пейнтболе, дартсе, волейболе и эстафетах. Зрелищной частью праздника стал турнир по управлению беспилотниками. В игровой зоне молодежь сыграла в гигантскую Дженгу, напольную игру студотрядов и попытала удачу в беспроигрышной лотерее.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совершить восхождение на Лягушку и загадать желания.

У костра с молодежью на фестивале пообщалс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месте с сахалинским бардом Вениамином Кимом студенты и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пели «Как здорово, что все мы здесь сегодня собрались» и обсудили карьер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на островах.

사할린에서 러시아 수구 종목 선수권대회 처음 개최

8월 2일부터 4일까지 아니와 지역 해변에서 러시아 수구 종목 선수권대회가 열린다고 아니와 스포츠 학교의 막심 시바로브 교장이 전했다.

이번 대회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그, 로스토브-나-도누를 비롯해 국내 여러 지역들에서 30개팀들과 사할린주 전역에서 8개 팀이 출전하여 승리를 두고 여성팀 및 남성팀 경기를 치르게 된다. 8월 2일(목)과 3일(금)에는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 예선전이 진행되며, 8월 4일(일)에는 15시부터 승리와 상금을 위한 결승전이 펼쳐진다.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пройдет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по пляжному волейболу

На Анивском пляже со 2 по 4 августа впервые состоится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по пляжному волейболу.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директор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города Анивы Максим Шибаров.

На масштабное событие съедутся более 30 команд из Мо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Ростова-на-Дону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нашей страны, а также 8 команд из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ороться за победу будут как мужские, так и женские команды. 2 и 3 августа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отборочные игры с 8:00 до 20:00, а 4 августа с 15:00 начнутся финальные матчи за победу и призовой фонд.

사할린주, 5월 월평균 근로임금 13만4천200루블리에 달해

사할린통계청의 전문가들이 2024년5월 사할린주 근로 단체의 명목상 월평균 근로임금을 집계했다. 사할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5월 월평균 근로임금은 13만4천249루블리이고 2024년 4월보다 1만4천370루블리가 올랐다. 4월의 월평균 근로임금은 11만9천879루블리로 집계되었다.

Средняя начисленная зарплата в ма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стигла 134, 2 тысячи рублей

Специалисты Сахалинстата посчитали среднемесячную номинальную начисленн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работников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мае 2024 года.

По информации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среднемесячная майская зарплата составила 134 249 рублей, что на 14 370 рублей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прелем 2024 года. Напомним, тогда среднемесячная начислен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работников составляла 119 879 рублей.

사기를 당한 연금 수급자들에게 1백만 루블리 돌려준다

오하 지역 여성 연금수급자에게 '투자하라'며 제안한 사기꾼들이 갈취한 1백만 루블리를 이 피해 여성에게 돌려주게 된다고 사할린주 검찰국이 전했다. 2021년 연말 이 여성은 투자 사이트에서 모바일 앱의 링크로 들어가 개인정보에 대한 서류 양식을 작성했다. 이후 익명의 사람이 연락해 중개 서비스를 제안했다. 이 여성은 그를 믿고, 연락을 취한 지 며칠 만에 사기꾼의 계좌로 85만 루블리를 이체했다.

사건이 범죄사건으로 기소돼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자금을 이체한 계좌의 소유자가 페름 지역의 주민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오하 지역의 검찰은 피해 여성을 위해 페름 지역 체르누쉰스키 구역 법원에 범죄사건 사건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보내 이 요청서가 검토되어 충족되었다고 전해졌다.

이에 피해 여성의 피해액 환급을 위해 1백만 루블리 이상을 징수하도록 했는데 이 금액에는 타인의 자금 갈취에 대한 벌금이 포함되어있다. 법원의 결정은 법적 효력을 지녀 법 집행을 위한 집행 영장이 범죄자의 주소지로 송부되었다.

Сахалинской пенсионерке вернут похищенный мошенниками 1 млн рублей

Пенсионерка из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олучит 1 млн рублей, который похитили аферисты, предложив ей начать «инвестировать».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прокура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онце 2021 года женщина перешла по ссылке в мобильном приложении на сайт «инвестиций», где заполнила анкету с персональными данными. Затем с ней связался неизвестный, предложив «брокерские» услуги. Сахалинка ему поверила.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общения она перевела на счет злоумышленника свыше 85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 данному факту возбуждено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в ходе расследования которого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держателем счета, куда женщина переводила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является житель Пермского края.Охинским городским прокурором в интересах пенсионерки в Чернушинский районный суд Пермского края направлено исковое заявление, которое рассмотрено и удовлетворено», - отметили в сообщении.

В пользу женщины удалось взыскать свыше 1 млн рублей. В эту сумму вошли проценты за пользование чужими деньгами. Судебное решение вступило в законную силу, получен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лист направлен для исполнения по месту нахождения преступник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Реклама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싣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윅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